

철도도시 익산, 유라시아 대륙진출 기적 올린다

러 하바롭스크시와
우호협력 협약 체결
몽골·중국·유럽지역
철도거점도시 교류 모색



익산시와 러시아 하바롭스크시는 지난 18일 익산시청에서 교류 및 철도 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익산시 제공>

익산시가 철도를 활용한 유라시아 대륙으로의 진출을 도모한다. 철도도시 러시아 하바롭스크시와 협력을 시작으로 몽골·중국·유럽의 대륙철도 거점 도시들과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지난 18일 러시아 하바롭스크시와 교류 및 철도 발전을 위한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러시아 극동지역 대륙철도의 첫 관문인 하바롭스크시와 협력은 익산역의 유라시아 거점역 선정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익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도시는 유라시아 철도역사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과 문화·산업·농업분야 교류를 추진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익산시가 유라시아 진출의 교두보 선점을 위해 지난해 12월 실무단

을 하바롭스크시에 파견, 성사됐다.

하바롭스크시는 러시아 극동지역 하바롭스크주의 행정 중심도시다. 이 도시는 인구 62만명의 철도교통 중심지이며 연평균 기온은 1.4도다. 특히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항일운동의 본거지였으며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교차지점으로 극동러시아지역의 행정·철도·산업·문화 중심지다.

최근에는 시베리아 횡단열차 여행객뿐만 아니라 유럽풍의 도심 경관을 갖춰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크라프추크 세르게이 하바롭스크 시장은 "대한민국 철도교통과 식품산업의 메카인 익산시와 우호도시의 연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류 사업을 추진해 상생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국내 대표 철도도시인 익산은 유라시아 철도의 시발역으로 선정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문화·산업·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방안을 연구해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군산시 '청소년 e스포츠 대회' 연다

5월 중 개최...청소년 건전한 게임 문화 정착 기대

군산시가 오는 5월에 청소년 e스포츠대회를 연다.

군산시는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게임 문화 정착과 게임을 즐기며 다양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2020 청소년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만13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이며, 경기 종목은 '리그오브레전드', '배틀그라운드', '피파온라인4' 등 청소년들에게 인기 높은 게임 3종목이다.

32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쟁을 펼쳐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성적별로 상금, 상품, 상장 등이 수여된다.

이 밖에 일반 관람객을 위한 VR·AR 등 디지털기기 체험과 인터넷·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 상담 등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최성근 군산시 문화관광국장은 "청소년 e스포츠대회는 군산시가 e스포츠 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불을 조성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e스포츠가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로 인정받고, 부모와 자녀 세대 간 소통의 매개가 되는 동시에 기성세대의 게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생애 첫 주민증 발급 청소년 순창군, 축하응원 카드 전달



순창군이 만 17세를 맞아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청소년들에게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감동 행정을 펴고 있다.

19일 순창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첫 주민등록증을 수령하는 대상자들에게는 한 장의 축하카드(사진)가 함께 전달된다.

축하 카드에는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순창군이 당신의 찬란한 미래를 응원합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순창군은 이번 축하카드 전달 이벤트를 통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소소하지만 학생들에게 큰 감동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청소년들이 응원 메시지를 받아 밝은 미래를 향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순창군, 신중년 경력 활용 일자리 조성

18명 선발...28일까지 접수

순창군이 신중년 일자리 만들기에 나선다.

순창군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3개 분야 18명의 신중년과 함께 일할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군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관내 거주 중

인 미취업 군민으로 분야별로 요구하는 근무경력과 자격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모집 분야는 사무 운영 멘토단, 지역문화 보전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바이오 자문위원 등 총 3개 분야이며, 총 1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분야는 가장 많은 인원인 10명을 선발할 계획인 가운데 문화재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활동한 경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

다.

또 다른 분야인 사무 운영 멘토단은 사무경력 5년 이상, 바이오 자문위원은 미생물, 건강 기능성 식품 등 식품·바이오 유통 관련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이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면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오는 28일까지, 사업장은 21일까지 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보물'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3년 만에 복원

전남 최초 백제사찰 재조명

보물 제298호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이 복원됐다.

강진군은 성전면 월남사지(月南寺址)에 있는 보물 제298호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을 해체한 지 3년만에 복원에 성공, 일만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월남사지 삼층석탑은 높이 8.4m의 전라도 대표 백제계 석탑이다. 국보 제9호인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과 비교되는 조적식 석탑이다. 최근 발굴조사 과정에서 백제기와가 발견돼 전남 최초의 백제사찰로 재조명되고 있다.

문화재청 진단 결과 붕괴위험이 우려돼 지난 2017년 4월 해체된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은 지난해 12월말 석탑 상륜부까지 조립을 완료, 안정화 모니터링을 거쳐 최근 일만에 선보였다.

해체된 모든 석재는 비파괴 물성검사 등 과학적 물성검사를 거쳐 석재마다 재질, 강도, 내구성, 손상도 평가를 통해 일부 변경 결정됐고, 일부 석재는 원형이 그대로 보존됐다. 바닥에 접해있는 기단 저석은 화강암 재질로 무게가 무려 8.5톤으로 이는 국내 석탑 중 단일부재로는 최대 규모다.

특히 해체·보수 과정에서 국내에서 유사한 형태가 발견된 적이 없는 높이 22cm, 가장 넓은 동체부 너비 11cm 크기의 정동병이 3층 탑신석 하부에서 발견됐다. 이



보물 제298호 강진 월남사지삼층석탑. <강진군 제공>

정동병은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수습해 CT(컴퓨터단층촬영) 촬영 등 비파괴조사와 부식물 제거·보존처리 중이다.

강진군은 다음달부터 월남사지 중심 권역 발굴지에 대한 복토와 관람객 편의시설 등의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발굴조사 당시 백제기와 등이 발견된 '월남사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중심공간인 주불전을 복원할 방침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흑산도·홍도 주민 해상교통 여건 개선

신안군, 해상기상관측부이 2기 기상청에 지원

신안 흑산도와 홍도 주민들의 해상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신안군이 '바다에 떠 있는 기상대'라고 불리는 해양기상관측부이 2기를 광주기상청에 지원, 기상 관측을 세분화했기 때문이다.

신안군은 군비 7억5000만원을 들여 해양기상관측부이 2기를 제작, 광주지방기상청에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양기상관측부이는 먼바다의 해상·특보를 지원하기 위한 해양기상관측 장비이다.

그동안 서해남부 먼바다에 내려진 기상특보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면서 흑산도·홍도 권역 주민들은 특보에 따른 교통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가거도 해역에 강한 바람이 불면 전체 해역에 일괄적으로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해역 전체의 여객선 통제와 조업활동 중단이 불가피했다.

신안군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광역으로 운영하던 서해남부 먼바다의 기상특보 구역을 2개 권역으로 분리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특보 구역을 서해남부 남쪽면바다(가거도)와 서해남부 북



홍도에 설치한 해상기상관측부이.

쪽바다(흑산도·홍도)를 분리해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서해남부 남쪽면바다와 서해남부 북쪽면바다의 기상 특보 발효 시간도 10시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신안군은 이번 서해남부 먼바다를 2개 권역으로 분리 운영함으로써 여객선 운항 일수가 연평균 14일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